

일과 직업의 사회학

직업과 심리

김현우, PhD¹

¹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May 11, 2022



진행 순서

- ① 직업위세
- ② 일의 사회적 의미
- ③ 일 가치관
- ④ 일 중심성
- ⑤ 직업윤리

직업위세

직업위세

직업은 경제적인 의미 뿐 아니라 사회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 직업선택과 이동을 설명할 때 경제학자는 기대소득을 강조하고, 심리학자는 진로성숙이나 흥미와 적성, 자기만족을 강조한다.
- 그러나 사회학자는 사회적 인정(social recognition) 및 지위(status)를 뜻하는 **직업위세(occupational prestige)**에 좀 더 주목한다. 이 점에서 직업위세는 경제학이나 심리학과 대조되는 사회학 특유의 주제로 볼 수 있다.
- 우리말 표현상 위세이지만 위압적인 개념은 아니고, 본래 의미상 존경(respect or admiration)의 의미가 강하다.



직업위세

- 직업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물론 경제적 보상을 얻는다. 하지만 그 뿐 아니라 내적으로는 자기만족을 얻고 외적으로는 직업위세를 얻는다.
- 경제적 보상, 자기만족, 사회적 인정(또는 지위)는 개념상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일반적으로 자기만족과 지위를 얻는다면 경제적 보상을 양보할 수 있다(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 철저히 자기만족을 위한 직업은 종종 다른 가치를 희생해야 얻을 수 있다.
- 다른 한편으로 높은 직업위세를 얻는다면 많은 자기만족과 경제적 보상을 포기해야 한다.



직업위세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직업위세로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했다.

- 일단 직업위세는 대단히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현상이다(유인물 참고).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 연구가 다음과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이다(e.g., 유홍준·김월화 2006).
- 우선 (1) 대표적인 30 개 정도의 직업을 선정한 뒤, 다음과 같이 직업위세를 조사한다.

59. 귀하는 다음 직업들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시는지를 ‘가장 높다’, ‘약간 높다’, ‘그저 그렇다’, ‘약간 낮다’, ‘가장 낮다’ 중에서 선택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보기 카드		가장 높다	약간 높다	그저 그렇다	약간 낮다	가장 낮다	모르겠다
OCCSTA01	1) 택시기사	_____ ① _____	_____ ② _____	_____ ③ _____	_____ ④ _____	_____ ⑤ _____	_____ ⑥ _____
OCCSTA02	2) 신문기자	_____ ① _____	_____ ② _____	_____ ③ _____	_____ ④ _____	_____ ⑤ _____	_____ ⑥ _____
OCCSTA03	3) 간호사	_____ ① _____	_____ ② _____	_____ ③ _____	_____ ④ _____	_____ ⑤ _____	_____ ⑥ _____
OCCSTA04	4) 이발사	_____ ① _____	_____ ② _____	_____ ③ _____	_____ ④ _____	_____ ⑤ _____	_____ ⑥ _____
OCCSTA05	5) 관공서 국장	_____ ① _____	_____ ② _____	_____ ③ _____	_____ ④ _____	_____ ⑤ _____	_____ ⑥ _____
OCCSTA06	6) 아파트 경비원	_____ ① _____	_____ ② _____	_____ ③ _____	_____ ④ _____	_____ ⑤ _____	_____ ⑥ _____

유홍준, 김월화 (2006). “한국 직업지위 지수.” 한국사회학, 40(6), 153-186.



직업위세

- (2) 조사된 30개 직업에 대해 사람들이 응답한 직업위세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한다.
- (3) 조사를 통해 각각의 직업을 가진 실제 사람들의 평균 수입과 평균 교육수준을 파악하여 독립변수로 한다.
- (4)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하여 수입의 효과 b_1 과 교육수준의 효과 b_2 를 예측한다.

$$\text{직업위세} = b_0 + b_1 \text{수입} + b_2 \text{교육수준}$$

- (5) 이제 수입과 교육수준을 토대로 (30개 이외의) 다른 모든 직업들의 직업위세 평균점수를 예측한다.

$$\widehat{\text{직업위세}} = \hat{b}_0 + \hat{b}_1 \text{수입} + \hat{b}_2 \text{교육수준}$$

- 이런 과정을 거쳐 유흥준 외 (2016: 194)와 같은 직업위세 점수를 구할 수 있다.



직업위세

애초에 직업위세는 Weber의 지위 개념에 대응하는 사회적 보상이다.

- Max Weber는 계층화가 발생하는 세 가지 구성요소로 (1) 부(wealth) 혹은 계급(class), (2) 위신(prestige) 혹은 지위(status), 그리고 (3) 권력(power) 혹은 정당(party)을 강조하였다.
- (생산수단의 소유라는 유물론적-경제적 요소가 사회계층의 핵심 단일요인이라고 보았던) Karl Marx와는 달리 계층화의 다차원적 성격을 강조한 셈이다.
- 마찬가지로 직업도 세 가지 측면에서 보상을 제공한다. 직업위세는 특히 두 번째 측면에서 본 사회적 보상인 셈이다.



지위는 부와 권력과는 매우 다른 특별한 작동 매커니즘을 갖는다.

- 지위는 타인의 존경(deference)에 의존한다.
- 이때 타인의 존경이라도 단순히 누구든지 상관없는 것은 아니다. (낮은 지위를 가진 '타인'의 존경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타인'의 존경이야말로 큰 지위를 안겨준다.
- 그러므로 기존 직업위세 연구의 근본적인 문제는 직업위세의 측정 방법이 이론적 개념과 불일치한다는 점에 있다.
- 실제 측정은 직업위세를 소득과 교육수준으로 적당히 환원하여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꽤 오랫동안 비판받아왔다.
- 소득과 교육수준이 다소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위세를 누리는 직업(e.g., 성직자)이 있다.
- 세계 각국의 엘리트나 정재계의 지도자가 노구의 성직자에게 고개를 숙일 때 이것은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가 된다.



일의 사회적 의미

일의 사회적 의미

(개인의 신념과는 별개로) 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유된 의미가 있다.

- 일에 대하여 한 사회가 공유한 의미 체계는 개개인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 또는 ‘좋고 나쁨’에 관한 가치관 형성과 사회화(socialization)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일의 사회적 의미는 개인의 **일 가치관(work value)**의 총합(aggregation)이라고 하기엔 오래 지속되고 사회마다 큰 격차를 가지고 있다.



일의 사회적 의미

일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비교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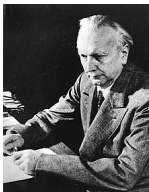
- 고대의 헬레니즘(Hellenism) 문명에서는 일과 노동을 **프락시스(praxis)**와 **포이에시스(poiesis)**로 대조하여 인식하였다.
- 프락시스는 능동적 실천으로 주인의 덕목이지만, 포이에시스는 남에 의해 주어진 수동적인 노동으로 노예의 덕목이다.
- 프락시스는 (제작자) 자신의 형상과 목적을 위해 사물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기 목적적이고 자기 충족적이다.
- 반면, 포이에시스는 (1) 질료(materie)의 주어진 성질을 전제 또는 제약 조건으로 하고 (2) 최종생산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의 목적에 종사하려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도구적이고 수단적이다.



일의 사회적 의미

- 노예는 포이에시스로 너무 바빠 자유와 정치에 관한 이론적 사고, 즉 테오리아 (theoria)를 수행할 여유가 없다. 주인은 품위를 위해 포이에시스를 수행해선 안된다.
- Karl Jaspers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리스인은 모든 육체노동을 쓸모 없는 인간이 하는 것이라고 경멸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인간이란 귀족이고, 노동하지 않고, 여가를 가지며, 정치에 관계하고, 격투기에 몰두하고, 전쟁에 참가하며, 정신적 작품을 만들어내는 인간이다.”



일의 사회적 의미

- 고대 헤브라이즘(Hebraism) 문명에서는 신의 총애를 받던 인간이 낙원에서 추방당하기 이전과 이후를 대조한다(<창세기>).
- 실락원 이후 인간은 땀흘려 노동(labor)하고 출산(labor)해야 하며 이것은 원죄(sin)의 대가가 된다. 다시 말해 일은 벌이다.
- 성서 첫 부분인 <창세기>는 다음과 같이 노동과 출산을 설명한다. 여기에는 가부장제를 전제하여 노동과 출산의 위계를 설명한다.

3:16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3:19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일의 사회적 의미

- Thomas Aquinas에 이르러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결합된다. Aquinas는 프락시스에 대응하는 *operare*와 포이에시스에 대응하는 *labore*를 대조하였다.
- 전자는 행위하는 자의 지혜나 능력에 의거하고, 그 형상이 미리 자신 속에 갖고 있는 것을 발현하는 것이다.
- 반면 후자는 밖으로부터 주어진 질료를 전제로 이에 구속된 것이며, 사람의 사용목적이 이미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노동하는 사람의 속에서는 일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 일에도 위계가 있다는 발상은 현대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에도 그 유산이 남아있다.
- Work, werken, *ouvrer*와 labor, arbeiten, *travailler*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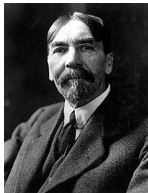


일의 사회적 의미

- 이와 유사한 관념을 Thorstein Veblen은 <유한계급론(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에서 고대와 중세의 영웅으로 묘사했다.
- Veblen은 고대로부터 존재해 왔던 일의 지위고하 인식이 사실 성차와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모든 봉건 공동체에서 가장 명예로운 직업은 전사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직자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사든 성직자든 상위 계급이 생산적 노동을 면제받는다라는 법칙은 예외 없이 지켜졌다. 노동의 면제야말로 상위 계급에 속한다는 것의 경제적 표상이었다.”

“영웅적 행위와 일상적 노역의 구별은 남녀의 구별과 일치한다.”



일의 사회적 의미

그렇다고 일의 사회적 의미가 영원히 고정불변한 대상인 것은 아니다.

- 일에 대한 사회적 의미는 조금씩 미세하게 변화를 겪어 근대에 이르면 명확히 사회적 의미가 달라졌다.
- Max Weber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이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 기층 민중의 직업노동은 원죄의 대가이자 노예의 의무이므로 한때 비천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자본주의 정신이 발흥하는 17세기 무렵에는 이제 노동을 통한 근면함의 표현과 부의 축적은 오히려 구원의 표징이 된다.
- Weber가 말하는 직업(beruf)은 신의 부름(calling), 즉 소명(vocation)이다.



일의 사회적 의미

- Weber가 설명한 프로테스탄트 윤리란 즐거움이나 열정 같은 감정적 요인과는 대척점에 있다.
- 노동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서) 묵묵히 수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금욕적 의무이자 사명이다.
- 심지어 Martin Luther는 수도원 생활조차 무가치한 것으로 비난하고 세속 안에서의 직업노동이야말로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주장하였다.



일의 사회적 의미

-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의 사회적 의미가 한 번 더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 이제 일은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 일은 즐거워야 하며 나는 일을 즐기는 사람임을 자기소개서와 인터뷰에서 드러내야 한다.
- (Weber가 설파했던) 금욕적인 사명으로 일하는 방식은 더이상 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돈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장과 더 성공한 미래를 위해 기꺼이 인턴과 짧은 근로계약마저 수용하는 태도가 기대된다.
- 관점에 따라 이것은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열정까지도 동원하는 것이다(미야 토쿠미츠 2019).

토쿠미츠, 미야. 2016. 『열정 절벽: 성공과 행복에 대한 거짓말』. 와이즈베리.



일의 사회적 의미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일의 의미는 역전될 수도 있다.

- “일의 의미가 뒤집힌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G. W. F. Hegel이 <정신현상학>에서 논설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 Hegel의 일에 대한 이해가 위대한 이유는 (Marx가 갈파했듯이) 인간의 일을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했다는 점에 있다.
- 생산과정은 필연적으로 **대상화**를 수반하지만 이를 극복한다면 더 높은 차원으로 노동하는 이를 고양시킨다.



일의 사회적 의미

- 가령 뛰어난 화가가 되고자 한다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앉아있기만 해선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불완전한 그림이라도 일단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자기 내면의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던 '형상'을 현실 속에 드러내야만 한다.
- 일단 현실 속에 그려진 그림은 나로부터 독립되어 이미 대상으로 전락한다.
- 그러나 나는 이미 대상화된 그림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즉, 이제 나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대상과 대결하면서) 엄격한 **부정**을 거쳐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자기로 거듭난다.
- 일을 수행하던 노예는 이제 물질세계의 법칙성을 학습하고, 낡은 자기 자신을 버려,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선다.



일의 사회적 의미

- 반면, 일하지 않는 주인은 오로지 그림이라는 대상을 향락적으로 소비할 뿐이다.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물로서 그림은 주인의 앞을 가로막아설 뿐이며 주인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만족은 스스로 꺼져 사라질 따름이다. 주인에게는 참다운 실천인 프락시스조차 없다.
- 이제 노예는 더이상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고, 주인은 더이상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된다. 이것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다.
- 다시 말해, 노예는 원래 주인에게 강제되어 타율적으로 노동을 시작했지만, 노동을 통해 자연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 스스로를 깨닫게 된 주체로서 거듭난다는 것이다.



일의 사회적 의미

Karl Marx는 Hegel을 다시 한 번 뒤집어 소외를 설명하였다.

- Hegel이 말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결국 생산노동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 반면, Marx는 이를 토대로 하였지만 전혀 다른 자본주의 현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Marx가 불과 20대 중후반에 쓴 <경제학철학 수고(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는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은 **소외(alienation)**로 이어짐을 주장하였다.
- Marx에 따르면 인간의 노동은 (사회적 진공 상태인) 자연 속에서 공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노동자 본인, 노동과정, 동료, 그리고 노동의 결과물과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일의 사회적 의미

마찬가지로 소외 또한 노동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 (1)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는 노동자 스스로가 만든 상품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2) **노동 과정에서의 소외**는 일하는 방식과 과정을 노동자가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3) **인간 본성으로부터의 소외**는 강요된 노동 속에서 **유적 존재 (gattungswesen)**로서의 인간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의식적이고 창조적인 노동이 불가능해지고 다만 괴로움만 남게 됨을 의미한다.
- (4) **동료 인간으로부터의 소외**는 사회성과 협력 정신의 파괴를 의미한다.



일 가치관

일 가치관

일은 개개인에게 경제적인 보상만큼이나 사회적 의미 또한 제공한다.

- 사람은 일에 대해 나름의 지향(orientation to work)을 능동적으로 형성하며 이것은 꼭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 개인 나름이 “일의 좋고 나쁨에 관해 세우는 기준들”이 바로 일 가치관(work value)을 구성한다.
- 한마디로 일 가치관이란 “무엇을 위하여 직업을 가지는가?” 또는 “직업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일 가치관

일 가치관을 양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내재적-외재적 가치이다.

- 내재적-외재적 가치 구분은 1930년대에 모든 것을 자극-반응(simulus-response)의 관계로 이해하고 모든 동기는 외재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던 행태주의(behavioralism)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 1940년대와 50년대를 거치면서 행태주의가 상정한 것보다 상위의 욕구와 성취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 이때 확립된 욕구 이론(need theory)은 내재적 가치라는 개념을 발전시켰고, 그 구성요소로 자율성, 자기존중감, 자기실현, 지배, 성취, 경쟁 등이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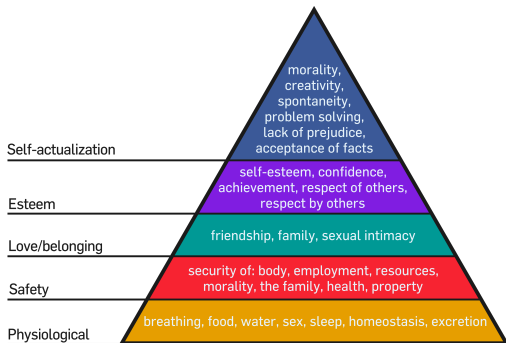
일 가치관

-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개념이 사람의 전체 잠재력을 깨우기 위한 동기로서 독일의 심리학자 Kurt Goldstein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래, 중요한 개념으로 널리 수용되었다.
- 이후 자아실현을 인간의 최상위 욕구로 풀이한 미국의 심리학자 Abraham H. Maslow가 욕구단계(hierarchy of needs) 개념을 내세우면서 유명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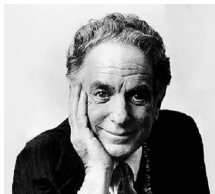
일 가치관

- 하위의 욕구에 머물러있을 때 일단 충족되면 아무리 자극을 가해도 더이상 만족할 수 없다.
- 일단 기저가 되는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소속감 욕구, 자존 욕구, 자아실현 욕구의 순서로) 상위의 욕구를 소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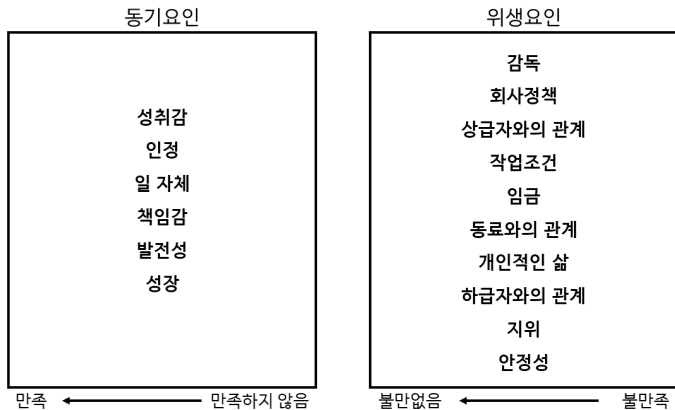
일 가치관

- Frederick Herzberg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제시된 2-요인 이론(two-factor theory)도 널리 알려졌다.
- 사람들에게 자신의 직무수행에 있어 어떤 부분이 좋거나 나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자세히 나타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일에 대해 좋게 느낄 때의 조건 **동기요인 (motivators)**과 나쁘게 느낄 때의 조건인 **위생요인 (hygiene factors)**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일 가치관

- 동기요인은 만족감과 동기가 되는 반면, 위생요인은 아무리 채워져도 단지 불만이 없는 상태가 될 뿐이다.



일 가치관

- Donald Super (1957)는 15개의 일 가치관 측정도구(Work Values Inventory: WVI)를 제시하였고 이후 조금씩 개정이 이루어졌다.
- (다른 전통적 측정도구들과는 달리) Super의 WVI는 통계적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의 난관을 뛰어넘었으므로 다른 설명보다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 정은주(2005)가 이를 번안하여 이 중 8개를 골라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로 구분하였다(유인물 참고).



사회학에서는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일 가치관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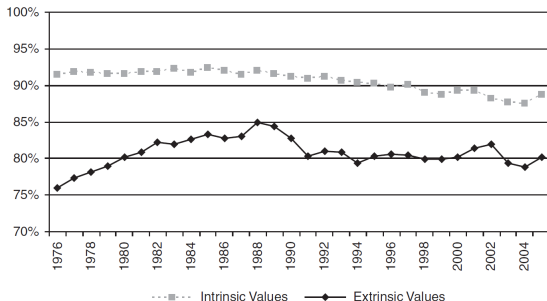
- Maslow가 제시한 개인의 욕구단계에 관한 설명을 Ronald Inglehart는 사회 수준에 적용시켜 경제적 발전이 높아질수록 그 사회는 **물질주의적 가치(materialist value)**보다 **탈물질주의적 가치(post-materialist value)**를 강조하게 된다고 보았다.
- 이 설명에 따르면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일의 내재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증대될 것이다(Norris and Inglehart 2004).

Norris, Pippa and Ronald Inglehart. 2004. Sacred and Secular: Religion and Politics Worldwid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일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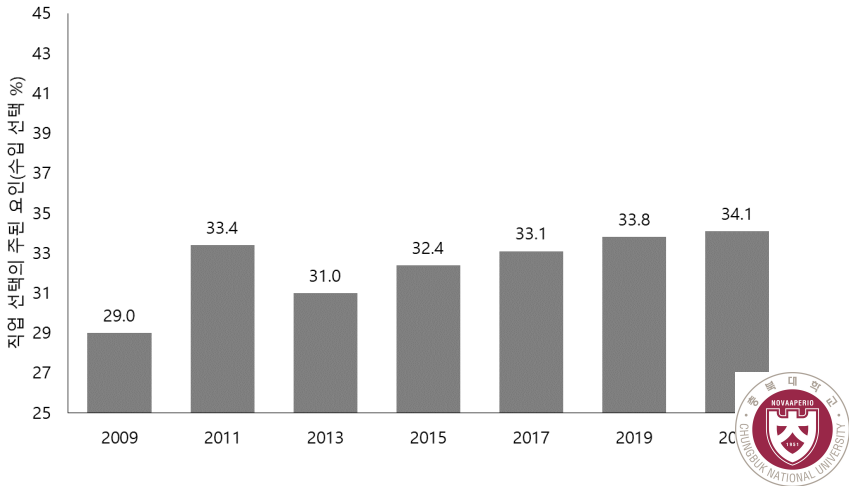
- 미국에서는 Laura Wray-Lake와 그녀의 동료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 수행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년 간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의 상대적 비율은 대체로 안정적이였다.



Norris, Pippa and Ronald Inglehart. 2004. Sacred and Secular: Religion and Politics Worldwid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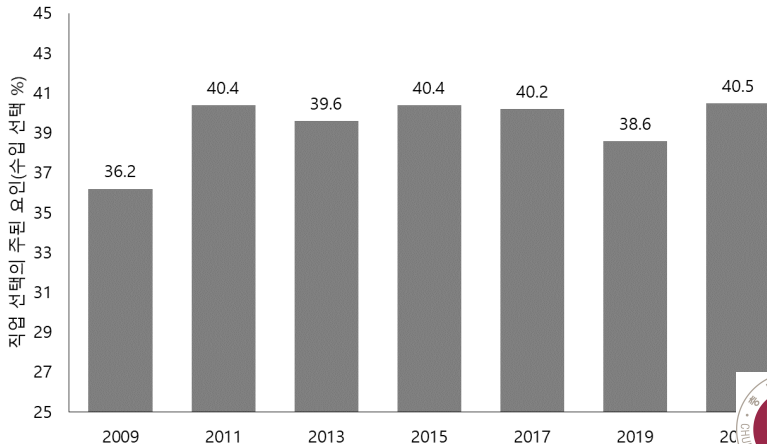
일 가치관

- 그러나 우리나라의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주된 직업 선택의 요인'으로 수입을 꼽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왔다(유홍준 외 2016: 125-128).



일 가치관

-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주된 직업 선택의 요인’으로 수입을 꼽은 비율은 20대 청년보다 월등히 높다.



일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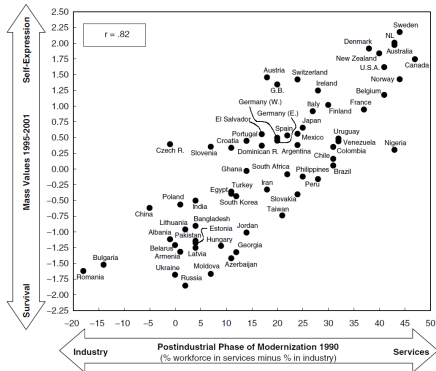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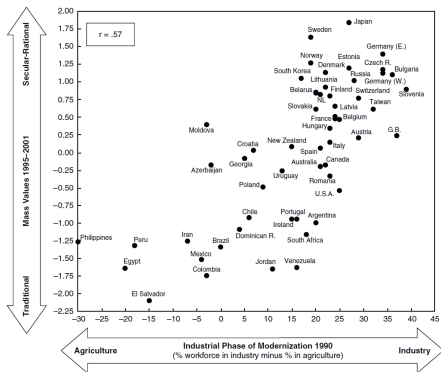
일 가치관은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거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 Ronald Inglehart와 Christian Welzel은 직업 구성의 변화에 따라 특정한 일 가치관이 한 사회의 주류적 가치관이 되며, 이것이 거대한 사회변동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 2차산업 노동인구에서 1차산업 노동인구를 뺀 값은 **세속적-합리적 가치 (secular-rational values)** 그리고 **자기표현적 가치 (self-expression values)**와 정비례한다.

Ingle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일 가치관



일 중심성

일 중심성

일 중심성이란 개인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 일 중심성(work centrality)이 높다면 일을 목적 그 자체로 강조하고 여가 활동은 피해야 한다고 여기는 태도이다.
- 일 중심성이 높다면 일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일은 주된 삶의 관심(central life interest)으로 여겨진다(Dubin 1956).
- 일 중심성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지표가 개발되었는데 특히 Irina Paullay 등이 1994에 발표한 일 중심성 척도(work centrality scale)이 널리 사용된다.
- 번안된 척도로 두송화 외 (2014)의 것을 읽어보자(유인물 참고).

Dubin, Robert. 1956. "Industrial Workers' Worlds: A Study of the "Central Life Interests" of Industrial Workers." Social Problems 3(3): 131-142.

두송화·장재윤·이주일. 2014. "일중심성이 중고령자의 활동적 노년에 미치는 영향: 생성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7(3): 565-584.

사회학에서는 여가와 일 중심성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았다.

- Harold Wilensky (1960)에 따르면 전문직이나 관리직 종사자들은 주된 삶의 관심 (CLI)이 일이고 (노동과 유사한) 정신지향적 여가를 즐기는 반면, 생산직이나 단순노무직의 경우 주된 삶의 관심이 여가이고, (노동과 유사한) 육체지향적 여가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
- 이와 같이 노동과 여가에서의 태도가 연속적인 관계를 일컫어 **여가의 확산효과 (spill-over effect)**라고 부른다.
- 확산효과에 따르면 여가추구형 인간은 일의 중심성이 떨어진다(Snir and Harpaz 2002).

Wilensky, Harold. 1960. "Work, Careers and Social Integratio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2(4): 543-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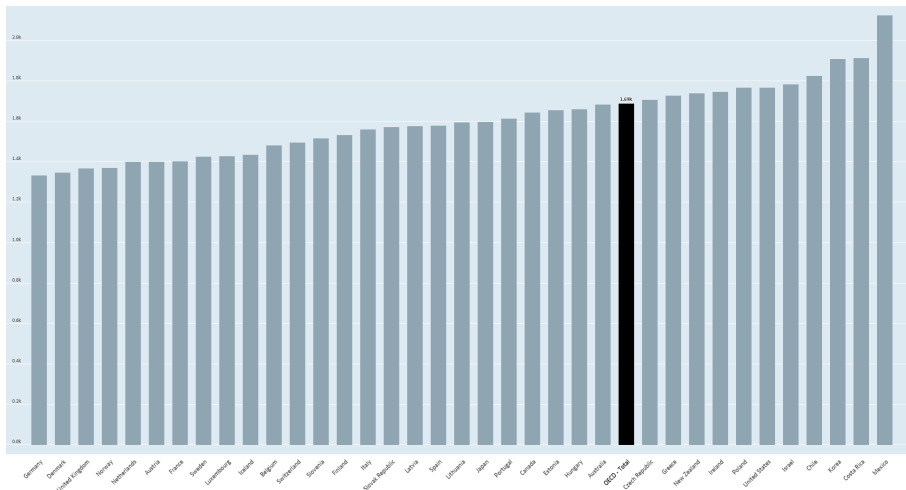
Snir, Raphael and Itzhak Harpaz. 2002. "Work-Leisure Relations: Leisure Orientation and the Meaning of Work."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2): 178-203.

그런데 일 중심성은 일 중독이라는 그림자를 안고 있다.

- 일 중독(workaholism)은 일 중심성이 지나쳐 부정적인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압도한 상태를 의미한다.
- 한국노동패널에서 사용한 일 중독 척도를 살펴보자(유인물 참고).
- 일 중독은 실제 초과시간 근무(overtime working)나 근로시간(working hours) 그 자체와는 다소 다른 개념임에 주의하자.

일 중심성

- 그러나 국제비교는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다는 것을 보여준다 (OECD 3위).



일 중심성

일 중독은 현실 사회문제에서 이른바 시간빈곤과도 직결되어 있다.

- 시간빈곤(time poor)은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타이트한 데드라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시간빈곤의 부산물이다.
- 일 중독은 일을 많이 해서 설령 소득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스스로 노동한다면 쉽게 절약할 수 있었던) 지출이 커지므로 금전상으로도 부정적인 타격을 받는다.
- 이 문제는 가족의 해체(family disorganization)나 일-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의 파괴와도 직결된 주제이다.
- 일 중독이 높게 나타나는 전문직은 특히 시간빈곤 문제에 심하게 시달린다.



직업윤리

직업윤리는 노동자들이 지녀야 할 도덕적 기준(이라고 믿어지는 가치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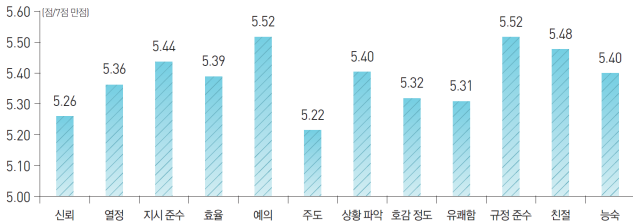
- 사회학은 당위적인 도덕적 기준을 국민윤리처럼 설파하지 않는다.
- 그 대신, “**직업윤리(work ethics)**가 수행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이 바람직한 직업윤리의 항목이라고 믿고 있는가?” 등을 탐색한다.
- 직업윤리는 이른바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의 일부분으로서 직장을 구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직업윤리를 **고용능력기술(employability skills)**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



직업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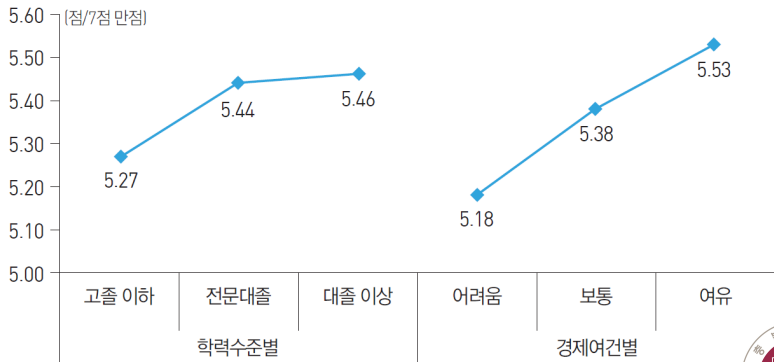
그런데 구체적인 직업윤리의 내용은 사람의 믿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밖에 없다.

- 직업윤리는 보다 엄밀하게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고 발달시켜야 하는 직업에 대한 윤리와 자세에 관한 믿음”이라고 정의된다.
- 이런 측면에서 직업윤리 그 자체를 탐색한다기보다 ‘직업윤리’라고 믿어지는 가치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는 셈이므로 **직무수행태도(commitment-to-work attitude)**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유인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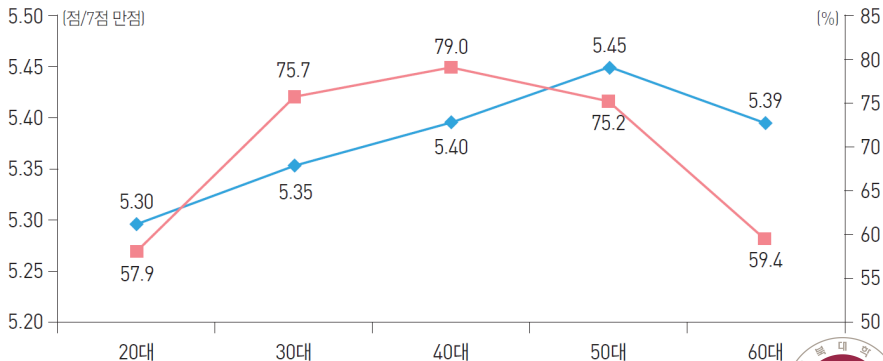
직업윤리

- 직무수행태도는 학력별로 차이가 있다. 고학력일수록 요구하는 직무수행태도의 기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 직무수행태도는 교육을 통하여 발달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직업윤리

- 직무수행태도(파란색)는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다. 특히 고용률(빨간색)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점이 특이하다.



직업윤리

직업윤리는 개인적인 태도나 신념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로도 거시적 영향력을 갖는다.

- 우리는 이미 Max Weber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통해 직업윤리가 거대한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았다.
- 다른 한편, 근로는 **사회통제(social control)**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엄밀한 계량 분석에서도 일하는 사람은 범죄를 적게 저지른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Uggen and Shannon 2014).
-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가인 Voltaire는 “일은 세 가지 커다란 악, 즉 권태, 부도덕, 그리고 궁핍을 막는다(Work saves us from three great evils: boredom, vice and need)”고 설파했다.



Uggen, Christopher and Sarah K. S. Shannon. 2014. "Productive Addicts and Harm Reduction: How Work Reduces Crime - But Not Drug Use." *Social Problems* 61(1): 105-130.